

베스트셀러로 본 여성 출판인의 특성

관계 조율력, 섬세함... 여성적 기질이 출판에 미치는 영향

출판계 여성 인력 파워는 단연 '베스트셀러 기획'에 주목된다. 어떤 책이든지 편집기획자는 있게 마련이고 특별히 '여성이기 때문에 기획할 수 있는 책'이라는 구분은 자칫 성차별적 발언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출판계 내 여성 편집기획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만들어낸 책과 기획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글_ 송보경 기자 | 사진_ 박신우 기자

최근 1, 2년 간 독자들의 관심을 끈 《인생수업》 《스미라의 눈에 대한 감각》 《생각의 탄생》 《이기는 습관》 《여자생활백서》 《여자의 발견》 등은 30대 중후반에서 40대에 이르는 여성 출판인 대표와 편집기획자들이 만들어낸 책들이다.

여성 편집기획자가 설립하고 현재 중견 출판사로 자리매김 한 '마음산책' '김영사' '도서출판 이레' '이마고' 등이 2000년대 초 독자 니즈에 부합하는 도서를 출간하면서 여성 편집기획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출판계의 여성 인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굳이 여성 편집기획자들에게 주목할 이유는 없지만, 오랜 출판계 경력을 밑천으로 독립하는 여성 편집기획자들이 늘고, 이들이 만들어낸 책이 호응을 얻으면서 여성적 기질과 출판계의 연관성을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독자 타깃에 부합하는 여성 자기계발서

지난해 출판시장의 키워드 중 하나는 '여성'이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30대 독신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타깃으로 한 여성 자기계발서들이 붐을 이뤘다.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는 여성들이 문화 소비층으로 떠올라 일, 사랑, 돈, 취미 등 현대 여성들이 관심 갖는 분야를 세분화한 책들이 생산됐다.

시나리오 작가, 아티스트 매니저, 포토그래퍼 등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20~30대 여성들을 인터뷰해 그들의 사회 진출기를 소개한 《여자의 발견》(M&K)은 동시대 여성 직장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책을 기획한 M&K 구모니카 대표는 "여성이 기획한 여성 관련 도서는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다"고 전했다. 이는 문화를 소비한 세대들이 동시대 현상을 잘 분석하고 파악할 줄 알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여성들의 연애편을 자유롭게 감각적인 글로 풀어 베스트셀러가 된 《여자생활백서》도 여성 독자의 심리와 출판계 흐름을 파악한 책으로 꼽히고 있다.

《생각의 탄생》 《공감 리더십》 《민음의 엔진》 《루비레드》 등 인문서 중심의 출간을 지향하는 에코의 서재는 편집기획자 출신인 조영희 대표의 작품이다. 독립 후 출간한 첫 책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가 좋은 반응을 얻어 여성 1인 출판인 성공 모델이 되기도 한 그는 "출판은 섬세하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

요하다”면서 “독자의 감성을 공략하는 데에는 여성들의 섬세함이 출판과 부합하는 기질”이라고 평했다. 또 최근 인기를 얻는 여성 공략 기획서뿐 아니라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지식 습득의 욕구와 사회생활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책들의 필요가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창업 1년 만에 세 권의 베스트셀러를 펴낸 쌤앤파커스도 주목 받고 있다. 《이기는 습관》《에너지 버스》《Mom CEO》 등을 펴내면서 여성 편집기획자의 힘을 과시하기도 한 박시형 대표는 성공적 사회 생활을 선택하는 독자 심리를 공략한 실용서를 꾸준히 펴내고 있다.

베스트셀러와 여성 편집기획자의 상관관계?

“기질적 특성 발휘할 때 가능한 일”

여성 편집기획자들이 시장 흐름과 여성 독자 심리를 자신의 경험과 겹쳐보며 독특한 아이템을 발굴하는 점은 여성적 기질이 접목된 두드러진 특징이다. 한 출판인은 여성 기획자들의 활약에 대해 “책은 기획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관계 조율 능력과 철저하고 꼼꼼함이 요구된다”면서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이런 과정 조율 능력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베스트셀러 탄생 여부가 여성과 남성의 기획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섬세함’과 ‘관계 지향적’인 여성 기질이 남성 기획자와의 차별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여성 편집기획자는 “출판계에 남성 인력이 여성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이 두드러져 보이는 면도 있다. 강인하지만 섬세한 기질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 출판계 구조가 적합한 것은 사실이지만 출판은 남녀의 기질적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성향과 능력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여성 편집자가 기획을 주도하는 경우 작가와 작업자의 관계 조율과 팀 구성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또한 아이템 발굴 능력이 특별히 남성보다 뛰어나다고는 단언할 수 없으나



최근 들어 여성 자기계발서의 인기와 남녀 관계의 심리를 다룬 책들이 여성 기획자들에게서 탄생하는 이유는 내면을 드러내는 것에 적극적인 여성의 심리와의 연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출판인은 “남성 기획자들도 소프트한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많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책으로 펴내는 일련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좀더 적극적이고 저자와 편집자들을 조율하고 이끌어 가는 편집자로서의 능력이 월등하다”고 분석했다.

장영희 교수의 시선집 《생일》《축복》 등을 펴낸 비채 출판사의 이영희 대표는 “여성 편집자 출신의 대표들이 등장한 게 얼마 안되어 호기심으로 주목하기도 한다. 섬세함은 여성들의 장점이지만 안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특별히 여성이어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은 없다. 다만 장점을 극대화해서 자기에게 맞는 분야의 옷을 잘 찾아 입으면 두각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고 여성 편집기획자들에게 대해 평했다. ■